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 비교 연구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중심으로-

Comparitive Study for Difference of Art Education
between Korea and France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송 선 영

2013년 8월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 비교 연구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중심으로-

Comparitive Study for Difference of Art Education
between Korea and France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송 선 영

2013년 5월



송 선 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II.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중요성	4
1. 미술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	4
2.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중요성	6
III. 한국의 미술교육	8
1. 한국미술교육의 흐름	8
2. 현행 미술교육과정과 미술교육의 현황	17
IV. 프랑스의 미술교육	24
1. 프랑스 미술교육의 흐름	24
2.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28
3. 프랑스 미술교육의 현황	30
4. 프랑스 미술교육의 특성	40
V.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교육에 대한 비교	43
1.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43
2.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의 성격 비교	48
VI. 결론	52
참고 문헌	55
ABSTRACT	57

표 목 차

〈표 III-1〉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18
〈표 III-2〉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총괄 목표	19
〈표 III-3〉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학년 군별 목표	19
〈표 IV-1〉 프랑스의 일반적인 교육제도	32
〈표 IV-2〉 CP, CE1 교과편성 및 수업시수	37
〈표 IV-3〉 CE2, CM1, CM2 교과편성 및 수업시수	37
〈표 V-1〉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제 비교	43
〈표 V-2〉 한국과 프랑스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목표	45
〈표 V-3〉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미술교육 내용	47

국 문 초 록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의 비교 연구 -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중심으로 -

송 선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임 춘 배

미술 교육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과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미술교육의 문제는 입시제도나 수업환경의 열악함,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미술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의 미술교육을 프랑스의 미술교육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내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살피고,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의 흐름과 각 나라의 미술교육 현황 및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이의 비교를 통하여 프랑스에서는 미술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견인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미술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고, 환경적인 차이 및 제도적인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그동안의 기능중심의 교육, 주입식 교육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바꾸어 실천해야 할 것이며, 프랑스 미술교육에 대

한 객관적인 비교 분석 및 연구를 진행하여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미술교육의 현실에 맞는 이론을 정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스스로가 창조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재능을 키워나가도록 고양시켜주어야 할 것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미술교육이다.

주요어 : 초등미술교육, 프랑스 미술교육, 미술교육과정 비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은 무엇인가? 지식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인간일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져 이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통합시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인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과 교육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하는 하나의 움직임일 것이다.

창의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자유로운 상상과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교육은 중요한 영역이다. 미술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개성 있게 표현하게 되며 정서를 함양하게 된다. 표현과정에서는 형태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함으로써 창의성과 질서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미적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듯 자아를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체험, 이해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방식과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표현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이 과연 이러한 창의성을 키워주는 기능을 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전히 우리 미술 교육의 모습은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가지고 교사가 방법을 일러주고 학생들은 주어진 사물이나 주제를 알맞게 그려 넣는다. 바탕을 모두 채워야 하고 구성물들은 큼직하게 그리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오가고 있다. 잘 그린 그림, 잘못 그린 그림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 미술교육의 모습이다. 분명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보다는 아직도 기능적인 숙련에 치중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반면, '그림은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다. 잘 그린 그림은 바라지 않는

다. 미술교육은 예술적 재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미술교육은 예술가를 키우는 과정이 아니다. 아름다운 감수성과 표현력을 키우는 방법이다.(EBS교육방송, 2010)'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교육은 어떠한가?

프랑스 미술 수업의 특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한 가지 결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미술 수업이 미술수업으로 끝나치지 않고 다른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아이들은 유연한 사고를 기른다. 프랑스는 미술을 여러 과목에 사용한다. 수학의 경우 대칭을 교육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하며 역사 수업에서는 예술사를 이용하여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때에 행해지던 예술가들을 함께 배운다.

프랑스 아이들은 보고 듣고 그리고 만들면서 오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변으로부터 그 생각을 존중받는다. 미술 활동을 통해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발산한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을 때 상상력과 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상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많은 상상을 할수록 창의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프랑스 미술교육은 이야기한다. 기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미술 교육이다. 바로 그것이 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유지하는 창의력의 원천일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미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초적인 방법이자 견인 수단으로 여길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미 미술교육의 선진국이라 불릴 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 프랑스의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미술 교육을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미술교육과 프랑스 미술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프랑스 미술교육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초등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또한 학교에서 미술을 지도할 때 교사들로 하여금 좀 더 폭넓은 안목을 지녀 균형적인 미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초등미술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미술교육을 비교, 분석해 보고 한국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발견, 개선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 교육과 교육 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미술 교육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 자료로는 관련 분야의 연구 논문, 학술지, 교육관련 도서, 프랑스 문화와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단행본, 인터넷 자료, 교육부와 연구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등이다.

프랑스의 교육현장을 직접 견학, 관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프랑스 교육현장을 담은 EBS교육방송 프로그램과 프랑스 미술교육의 연구 논문자료와 학술지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중요성

1. 미술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교과 교육의 목표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라고 밝히고 있다.

미술교육의 경험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와 창조적인 가치,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한다. 또한 미술교육은 정서를 안정시켜 주고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주며, 풍부한 감정과 자주적 성격을 길러주고 창조력을 육성한다. 이처럼,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미술교육은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미술과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를 강조한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덕자, 1999, p. 5)

첫째, 미술교육은 인지적인 발달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 미술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한 Kellogg는 아동 미술과 지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술교육은 아동들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므로 아동들의 학습 접근 능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 자신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즉 그려보고, 구성하고, 빚어 봄으로써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명백히 하고 보다 예리하게 세계를 지각하게 된다. 또 개념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각력은 아동들이 다양한 자료의 종류, 특성들을 탐색하면서 발달하므로 미술교육을 통해 아동은 주위의 자극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아동의 추리력을 포함해서 문제 해결력도 여러 가지 자료를 다루어 봄으로써 발달할 수 있다.

둘째, 미술은 정서적 발달과 관계가 있다. 성인들이 손으로 만들고 일을 해 보

는데서 정서적인 해방과 만족을 느끼듯이 아동들도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며 안정감을 갖게 된다. 또 미술교육에서 다루게 되는 자료를 통해 아동들은 수용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한 감정을 수용적인 태도로 조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즉 점토 주무르기, 종이 찢기, 바느질과 직조 등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휘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므로 긴장을 풀 수 있고 만족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을 재인식하게 되므로 감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김택용(1979)도 아동미술과 정서적 발달과의 관련성이 깊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동들이 표현하는 선, 형, 색은 아동들의 마음을 각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아동의 심리 투영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아동의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아동은 미술활동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스스로 선택한 미술활동에 참여할 때 공통된 흥미를 가진 아동들은 쉽게 집단을 형성한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우며, 서로 협력하고 돕는 등의 집단 생활에서 주고받는 상호 교류적인 태도를 경험하게 된다. 즉 미술교육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넷째, 미술교육은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한다. 가위로 오리고 크레용으로 그린다거나 점토를 주무르는 것, 전신을 사용해 낙서하는 것 등은 모두 상당한 신체적 발달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만들기를 하는 과정 동안 손, 발, 눈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으며 신체기관의 소근육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Hallman에 의하면 창의성이란 모든 아동들이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행동 특성이다. 이는 창의성이 계발되어야 하고, 누구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나병술(1985), 김춘일(1989)은 창의성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해냄으로써 계발된다고 보았다(김진희, 2001, p. 5). 다양한 재료 및 색채를 이용하여 표현활동을 하는

경험의 기회, 바로 미술교육이야말로 아동의 잠재력을 표출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진다.

2.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미술교육은 미술의 형식면에서 조형성을, 그 형식에 담겨지는 내용면에서 창의성을, 그 내용과 형식이 감상된다는 면에서 정서성을 말할 수 있다.

조형 요소를 구성하여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기능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함께 작용하여 미술행위가 된다. 미술활동을 통하여 미의식을 심화하고 미적 감동을 느끼며, 조형의 질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창의성은 잠재적인 감성을 최대한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인데 잠재적인 형태에 질서를 부여하고 구체화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이다. 창조에는 개인의 감정과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개성의 신장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미술은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표현활동이므로, 미술 활동 그 자체가 창의성을 지니며, 자기만의 자유롭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표현을 기본으로 한다. 창의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창의성은 계발되어지는 것이다. 다르게 보는 연습, 생각의 틀을 깨는 연습, 더 깊이 생각하는 연습 등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잠재력을 표현하며 계발되어진다. 미술은 그러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라고 할 수 있으며 창의력을 풍부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성은 미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길러지며 시각적 경험에 의하여 미적 정서를 기르고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아가 원만한 인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Donald Winnicutt, 1998, p. 11) 또한, Victor Lowenfeld(2002, p. 30)는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을 강조하면서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에 의해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술은 어린이와 주위 환경과의 관계이며, 어린이 자신을 투영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심리적 자아에 통합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정효, 2010)

미술교육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잠재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가기 개인의 사고와 감정, 지각 등을 균형 있게 길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 능력, 종합적 사고능력은 학교에서의 형식화되고 개념화된 수업 방식에 의해 점점 소멸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가 줄어들수록 점점 더 쉽게 잊혀지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미술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린이가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 자라느냐, 아니면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용하지 못하거나 내면 정서의 메마름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자라느냐 하는 것은 초등학교시기에 미술교육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각과 사고, 감정은 어떠한 창작과정에서든 강조되는 것이며 미술활동은 어린이의 지능과 정서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즉 이러한 미술교육은 바로 미래 사회를 위한 모든 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Ⅲ. 한국의 미술교육

1. 한국미술교육의 흐름

한국의 미술교육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본에서 유입된 미술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 시대적 변천 속에서 많은 변화와 더불어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100여년 동안, 기능위주의 미술교육에서 시작하여 아동의 창의성과 자유표현을 중시한 창조주의 미술교육, 그리고 미적 체험과 미의식의 함양, 이해와 감상교육을 강조한 이해중심 미술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현재 많은 방법론적 패러다임 속에서 미술교육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흐름은 교육과정 제정(1954)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 이전의 미술교육의 특징과 교육과정 제정시기부터 7차 미술교육과정까지의 개정의 중점사항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술교육을 살펴보고 하겠다. 이렇듯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흐름을 고찰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미술교육의 흐름을 교육과정 해설서(200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 이전의 미술교육(1894-1954)

조선시대에는 특정신분을 위한 교육기관인 서당, 서원, 사학, 향교,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다. 이곳에서의 미술교육이란 주로 습자와 도화를 배우고 당시 유행하는 사군자를 익히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공시화가양성기관인 도화서를 운영하였고, 도화서의 화원들 이외에도 미술을 생활화하는 문인 화가들과 장인들이 있었으며 장인들은 천대받았으며 미술은 특정 계급의 향유물로 여겼다.

미술이 사대부와 특정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것이 본격적인 학교 교육으로 공포된 것은 구질서에 대항하여 근대화의 새 장을 열고자 했던 1894년 갑오개혁 이후였다. 고종은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제도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며, 비실용적인 경전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용적 교육을 보급함으로써 부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증흥을 이루고자 하였다.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세워 교육의 계급의식을 없애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학교령과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였는데, 그에 의해 미술과 교육도 제도적 학교 교육으로써 1895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당시 소학교령에 의한 교과목인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체조 가운데 미술과 관련된 과목은 습자(習字) 정도였고, 도화(圖畵)는 체조 대신 추가할 수 있는 과목에 불과했다. 습자는 글씨 쓰는 법을 알고 운필을 익히는 것으로, 한글과 한자가 섞인 문장을 자세, 운필, 필력, 속도 등을 강조하여 지도하였고, 도화는 형체를 바르게 그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물을 그대로 보고 그리거나 임화하는 정도로 지도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미술교육은 정식 학과목으로 취급되어 시행되었기보다는,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적인 초기형태의 미술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을사조약 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식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보통학교령에 의해 구한말의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미술교육에는 습자가 제외되고 수공을 지도하였다. 수공 과목의 도입은 공작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었으나, 나무, 대나무, 점토, 종이류를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수준으로 정서나 창의성을 고려하는 내용과는 먼 것이었다. 당시 미술교육이라는 것은 주로 임화였고, 연필이나 모필로 하는 모방에 의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김영학, 1982). 1910년 이후 조선 교육령(1911년 8월)이 공포되고 미술교육은 도화, 수공의 이름으로 획일적인 훈련 방식의 교육이 계속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개별적인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기능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도화, 수공은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특히 산업에 관계된 수공 교육을 중시하여 도화 교육 자체를 시간 배당에서 빼내어 지도해도 무방하게 여겼다. 전시체제 하의 미술교육은 생산적이고 실리적인 만들기와 모형항공기 제작이나 기계조작 등, 공작의 중요성이 현저히 강조되고 정신함양을 위한 전통적인 모필화 교육도 부각되었다(김향미, 2003).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창조성은 묵살되고 일제가 철저한 모방적 사실교육을 통하여 한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스파르타식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1945년 광복으로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 자유와 인간을 존중하는 새로운 서구식

민주주의 교육 사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광복 후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군정에 의해 준비되고 계획되었으며, 1946년 미군정청 학무국은 학교 수업의 실체를 위한 지침서 ‘교수요목’을 배포하였고, 이 시기에는 새 교육의 도입과 그 확산을 위한 기간으로 이때부터 각급 학교의 교과분과주의를 채택하여 교과별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시작했다. 교수요목에 의한 분과주의는 미술교육이 완전한 하나의 교재로 독립되고 도화, 공작이 ‘미술’이라는 교과목으로 통일되게 하였다.

듀이에 의한 새 교육사상은 창조주의 미술교육사상과 맥락을 같이 했는데 새 교육의 특징은 교사 중심과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아동과 학생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표현주의 내용이 미술교육의 목표가 됨으로써 미술을 통한 원만한 인격형성 및 심미적 정서를 함양코자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석이 되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미술 교과는 ‘심미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조화롭고 명량한 생활을 하게 한다.’로 교육 목표를 정하였다.

1950년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 규정 등이 마련되고 교수요목 제정 심의회 규정이 문교부령으로 제정, 공포되기도 하였으나 6·25 한국전쟁의 발발로 교실이나 교사가 부족했고 교과서 발간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미술교육은 아동의 창의성과 자유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은 다소 있었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상 미술품의 창조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기능위주의 공작실기 등을 중심으로 미술활동이 이루어졌다.

나.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 교과중심 교육과정

3년간의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피해복구를 서두르면서 중단되었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계에서도 노력하였고, 마침내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초등학교, 중학교여 교육,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공포하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4호로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6·25한국전쟁과 휴전으로 국가전체가 사회복지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이 요청되고 있었고, 둘째, 교육과정의 이론적 측면에서 진보주의와 새 교육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으며, 셋째, 기존 교육과정의 불합리성 측면에서 전쟁을 전후하여 나타난 교육내용 중 난이도가 높은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초등미술교육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립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기, 만들기, 쓰기의 3개영역으로 어린이의 조형 활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미술과 전체 지도목표와 영역별, 학년별 지도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감상영역은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표현활동 속에서 구성되어졌다.

다.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 경험주의 교육과정

제1차 교육과정은 단편적인 지식주입에 편중된 점이 많았고, 인격도양에 소홀한 점과 실제 학습에서도 실생활과는 거리가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1963년 12월 15일에 문교부령 제119호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은 ‘교육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된 구체적인 문화재 또는 활동을 자라나는 학습자의 발달과정에 맞도록 편성하여 그 학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체계적으로 표시한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서, 교육과정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교에서 계획되고 지도되는 교육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 하나하나가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기본방향은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 교육과정 이론을 채택하였다.

이때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미술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예술적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예술적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응용 또는 활용토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술작품이 ‘학생들의 예술적 취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들에게 요구된 사항이었다.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조직면에서는 합리성을 강조하였고, 운영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미술과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면서 2차 교육과정시대의 미술의 목

표는 4가지였다.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미술의 경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르고, 이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만족시킨다.

둘째, 조형능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자기생활을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꾸며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셋째, 조형 활동에 필요한 용구와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자연미와 조형품을 감상함으로써 미적 정서를 길러 조형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아끼고 보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초등학교 미술과 지도목표는 표현능력 육성, 생활의 합리성, 용구와 재료의 사용능력, 감상능력의 발전으로 세우고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미술과의 지도내용을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쓰기, 감상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학년에서 고루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도 내용의 범위와 지도순서를 밝혀주었으며 지역실정이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 첨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술 본연의 입장에서 내용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여 교과 운영과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었으나 초·중·고의 급별 내용에 별로 일관성이 없었다.

라.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 학문중심 교육과정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 공포된 3차 교육과정은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의 선포로 초등학교의 지표가 명시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으며, 1960년부터 계속되는 경제개발과 고도성장,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변동과 1972년 10월 유신 등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생활 중심 교육이 학생들의 경험이나 흥미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반성으로 지식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지식의 구조화를 통해 발견하고 탐구하는 학습에 역점을 두는 학문주의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미술과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술과의 일반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어린이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킨다.

둘째, 표현활동을 통한 미적 감각을 발달시킨다.

셋째, 조형능력을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표현의 기초적 기능을 육성한다.

다섯째, 민족미술의 감상에 중점을 둔다.

제3차 교육과정은 각 학년의 지도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을 본 제도에 올려놓았다.

미술과 교과서의 내용은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쓰기, 감상의 5개 영역을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의 6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영역의 변화는 미술교육이 도화, 공작의 개념에서 본래의 모습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2차 교육과정의 만들기는 공작적인 의미가 내포되고 있었으나 3차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실과교육으로 이양하고 미적 아이디어를 중심을 한 공작내용으로 공예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초등학교는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의 6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지도 내용으로 중심개념 및 표현요소와 표현활동, 재료 및 용구의 범위와 사용기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표현 기능의 지도사항은 강조하면서 각 영역을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마.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 인간중심 교육과정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고시 제422호에 공포된 교육과정은 정치적·사회적으로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 1980년 교육개혁조치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면서 구 교육과정이 10여년 시행하는 동안에 급속한 공업화 및 산업발전과 비정상적인 도시화로 인간소외, 비인간화, 각종 공해를 맞보면서 인간 상실을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지나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편향으로 교과간의 벽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교육효과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이상 실현을 위한 교육에 부응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건

전한 사회인으로, 건실한 국민으로, 그리고 폭넓은 세계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나가는 것이 4차 교육과정의 목표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과 교육과정은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의 회복과 지식편중으로 뜻을 잃어 가는 미술과를 조형적 경험과 흥미로써 되찾고자 아동들 내면에서 잠재하는 추진력에 합치시켜 주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미술경험을 통한 국민정신 교육을 강조하면서, 둘째, 아동들이 스스로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 상상력, 탐구적 태도를 길러주는 창의성 발달을 강조하고, 셋째, 아동의 심미적인 심성이 계발되고 함양될 수 있는 미적 정서를 강조하며, 넷째, 아동의 발달 특징과 아동의 미적 경험을 특성에 맞는 내용을 정선, 체계화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다섯째, 미술의 여러 가지 면모를 폭넓게 경험하도록 포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미술과 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목표를 어린이의 조화적 인격 발달을 강조하는 면에서 사회가 직접 필요로 하는 전문적 조형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미술과의 지도내용은 미술적인 내용에 흥미를 느끼도록 함으로써, 미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향을 기르는 내용들로 구성하되 점차 학년이 높아갈수록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지를 가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계승, 발전하도록 하는 주체성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미술과 교육목표를 보면 초·중·고 모두 조형의 표현 및 감상활동을 통하여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기르고,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애호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총괄목표를 두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즐거움에 강조를 두었다.

이러한 총괄목표아래 초등학교에서는 생각과 느낌을 즐겁게 표현하는 조형 능력, 자연과 조형품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애호하는 감상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지도 내용은 초·중·고 모두 표현과 감상영역으로 나누고 하위 영역으로서 초등학교는 조형놀이(1, 2, 3, 4학년), 회화로 표현하기, 조소로 표현하기, 꾸미기와 만들기, 서예로 표현하기(3, 4, 5, 6학년), 감상하기의 6개 영역을 두었다. 이렇듯 제4차 교육과정은 학습내용이 행동화되고 개방화되면서 미술교육이 성숙기에 접어든 시기이기도 하다.

바. 제5차 교육과정(1987-1992)

1987년 6월 30일에 개정, 공포한 제5차 교육과정은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간육성을 위해 종래의 교과과정인 교과중심, 생활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교육과정의 장점을 조화롭게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5차 교육과정의 기본과정은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이념을 기저로 인간존중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목적에 입각하여 지, 정, 의가 융합되고 조화되도록 감성적 인간 육성을 강조하였다.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 인간중심 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정의적 인격 형성과 주체적 문화의식의 교육 및 인간존중 교육의 충실을 꾀하도록 하였다.

미술 교과 목표의 특징으로서는 미술을 통한 정의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형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창조성과 감정이 풍부한 개성적 인간을 육성하려 한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미술의 여러 장르에 따라 지도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고 어린이의 조형 활동에 중점을 두어 표현과 감상의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급격히 발달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정서성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대적 흐름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미술교육이 미술 문화 발전에서 인간교육으로 전환되도록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미술교육학 입장의 교육과정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울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미술을 음악, 체육과 통합하여 즐거운 생활로 교육하였고, 미술을 표현과 감상으로 나누고, 표현은 회화와 조소를 통하여 경험한 것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를 설정하고, 그 외에 모양을 생각하여 꾸미기, 환경 꾸미기, 쓸모를 생각하여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로 구분하여 지도하게 하였다.

사.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화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능력, 학습자의 경험 세계의 중시, 교육 현장과 창의성, 자율성의 확대 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체계화된 시각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예술적 특성과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 등을 신장시키기 위한 일반 교육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미술과를 전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교과로서 일반교육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예술적 측면을 조화시키는 교과라고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은 첫째, 전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성, 창조, 개성교육을 강조하고, 둘째, 미술과 생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지를 갖도록 하며, 셋째, 초·중등학교의 미술과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구체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수준별로 유의해야 할 조형요소나 재료 및 용구를 제시하며 아울러 창조적인 표현활동을 더욱 강조하였다. 넷째, 미적 감성을 계발하고 미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감상지도를 강화하고, 다섯째, 우리나라 미술의 전통성을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통 미술지도를 강화하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미술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런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계발하며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 속에서 미술을 느끼고 애호할 수 있는 태도와 느낌과 생각을 즐겁게 나타내는 능력,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고 있다.

초등학교 내용체계는 미술과 생활, 느낌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작품감상으로 나누었는데 미술과 생활 영역에서는 미적 체험 활동을 하여 미가 존재하는 생활전반이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표현활동으로는 느낌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즐겁게 나타내도록 하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고, 감상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작품과 친구들의 작품을 보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함

은 물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품의 특징도 찾아보며 더 나아가 미술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미술이해 지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미술과 생활 영역을 신설하였고, 전통미술 교육을 강조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김정희, 2003)

2. 현행 미술교육과정과 미술교육의 현황

가.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앞서 제1차부터 6차까지의 한국의 미술교육과정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현재는 제7차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한 2007 개정교육과정이 대부분의 학교와 학년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가 도입되어 2~4년에 한 번씩 수시로 개정하게 되어 이로 인해 8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2007년, 2009년 교육과정이 두 번 개정되었으나 2013년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2007 개정교육과정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목표면에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내용면에서는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영면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그리고 제도면에서는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제정하였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제6차 미술과 교육과정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세워 1997년에 공포한 후 2002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에 걸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정신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미술과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을 중심으로 정선하여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는 것이다. 넷째,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교과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미술과 학습내용에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를 반영하며, 나아가 미술을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전통 미술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감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일곱째,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며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한다. 여덟째, 미술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학생간의 상호 비교가 아닌 계획된 학습 목표에 비추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는 개별 학생들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시한다.(이화식, 2010, pp.164-165)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표Ⅲ-1> 과 같다.

<표Ⅲ-1>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p>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p> <p>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p> <p>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p> <p>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p>
--

미술교과 내용은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적 체험’과 ‘표현’, ‘감상’은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특색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 내용을 융통성 있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1세기를 맞아 다양한 교수방법이 요구됨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또한, 평가 시에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세 가지 영역 모두를 평가하도록 하였다.(김성숙, 김정희, 김형숙, 김혜숙, 안근희, 2007)

2) 2007 개정 교육과정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이 수정·보완되어 2007년 2월에 고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는 동안에 국내외의 급격한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그동안 전면적으로 개정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본 이념과 내용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학년 군별 목표, 시각 문화 환경, 미술 문화, 표현 과정, 시각 이미지를 통한 미술의 의사소통의 강조 등이다.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는 <표Ⅲ-2> 와 같으며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학년 군별 목표는 <표Ⅲ-3>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Ⅲ-2> 2007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총괄목표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능력, 비평 능력을 기르고, 미술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라.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표Ⅲ-3>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학년 군별 목표

초등학교 3, 4학년 목표

- (1) 시각적 대상이나 현상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초등학교 5, 6학년 목표

- (1) 시각적 대상이나 현상에서 미적 특정을 발견한다.
-

-
- (2) 표현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2)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기초를 익힌다.
- (3) 미술 작품과 미술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3) 미술 작품을 분석하고 미술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나. 한국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앞선 연구를 통해 미술과 교육과정이 1950년대 이후로 제1차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미 8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2009년 12월 17일 확정 발표되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조형적인 표현을 위한 기능은 물론 미적체험과 감상 영역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창의적인 미술교육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육 연구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거두고 있는가?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제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미술교육과정은 형식적인 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인 면에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듯이 수업시간이 시작되면 교사는 교과서에서 한 주제를 골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사의 설명을 듣고 교과서의 예시작품을 보고 그린다. 이처럼 학생들은 여전히 상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보다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기능적인 숙련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 수는 30여명이다. 미술수업은 다른 교과목처럼 앉아서 교사의 설명을 듣는 수업과는 달리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위한 환경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술수업만의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기자재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감상을 위한 미술관 교육을 하기에 1시간의 수업과 많은 학생들로 인해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을 살펴보면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교사라 하더라도 창의력, 상상력 등을 길러주고 전통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학교의 미술교육은 남다른 재능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 주는 것이다. 초등 학령기는 자신의 방식과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표현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이다. 상상력과 표현 사이의 갈등이 연속되면서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초등학교 시절의 미술교육은 가급적 여기에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끊임없는 상상력에 도전하게 하고 그에 따른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성에 입각한 지나친 간섭은 대다수 아동들의 흥미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습장면이나 표현 방법, 재료 등의 문제거리를 만들어 주며 자신의 상상력에 이내심을 가지면서 감성과 지성, 창의성 계발을 도와주어야 한다.

초등미술은 아동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기초교육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초등 미술교육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현방법의 반복성이다. 아동들에게 색칠을 꼼꼼하게 칠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성격이 섬세하거나 꼼꼼한 아동들은 즐거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색칠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교사들 중에는 다수의 학급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미술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발상을 표현하는 시간이지 색칠을 반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길러주는 시간이 아니다.

둘째, 교사의 성향에 따른 지도방법이다. 아동이 그림을 그리면 바탕색을 꼭 칠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편협한 지도방법이다. 아동들이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시하고 바탕색을 칠해야 그림이 완성된다는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그림에 바탕색이 있을 때의 느낌과 여백의 느낌을 아동들이

느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미술의 다양성과 정서성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때로는 여백이 아동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여유로움과 새로운 발상력을 길러줄 수 있다.

셋째, 아동이 그림에 색칠할 때 형태를 벗어나지 않게 지도하는 방법이다. 물론 그림을 크게 그리고 색칠이 형태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림 형태가 작은 곳에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색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남자 아동들 중에는 그림을 크게 그리거나 움직임 표현하면서 대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색칠하는 것은 집중력 보다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동들 중에는 자신이 표현한 그림에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색칠하면 그림 형태가 뭉개져서 색칠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림에 색칠할 때는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에 색칠하도록 지도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넷째, 재료의 한계성이다. 아동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크레파스는 그림을 크게 그리는 장점도 있지만 형태를 고치거나 섬세한 내용을 그리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또한 아동이 크레파스로 드로잉 할 때 틀리면 고치기 어려워 그림에 X 표시를 하거나 쉽게 그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그림에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필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틀린 곳은 지우개로 고쳐 새롭게 표현할 수 있어 자신감과 집중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아동들은 미술재료 중에서 찰흙이나 물감을 가장 좋아한다. 하지만 초등교육 현장에서 찰흙이나 물감은 청소하기가 어려워 교사들 중에 일부는 찰흙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찰흙은 가소성이 있어 아동에게 조작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연친화적인 정서를 길러준다. 또한 물감은 다양한 색의 혼합과 놀이 개념의 미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동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다.

다섯째, 기능적이고 단순화된 편화그림의 부작용이다. 초등학교 자습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아동들에게 작은 편화 그림을 나누어 주고 따라 그리거나 색칠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편화그림은 성인 미술가들이 그린 것으로 형태는 단순해 보이지만 아동들이 따라 그리게 되면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편화 그림을 따라서 그리면 아동의 생각보다 편화가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므로 아동들은 편화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자신이 그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이 반복되면 아동은 자신의 그림에 실망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러셀(Russell)과 와그만(Waugman)의 실험연구에 따르면 칠하기 그림책(coloring book)에서 새를 접해본 어린이의 63%가 그들 자신이 처음으로 느꼈던 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새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교재에 제시된 도식화된 양식과 비슷하게 바꾸었다고 한다(Victor Lowenfeld, 2002).

여섯째, 평가에 대한 문제이다. 아동들의 능력은 단편적이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미술활동은 언어로 적절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할 때 그들의 기쁨과 슬픔, 걱정과 좌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교사의 시각에서의 기능적 평가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 현실이다.(백중열, 2008)

IV. 프랑스의 미술교육

1. 프랑스 미술교육의 흐름

가. 선사시대부터 산업사회까지의 미술교육

선사시대부터 고대 문명사회를 거쳐 중세의 봉건사회에 이르기까지 미술교육은 도제에 의한 방식으로 전수되어져 왔다. 도공, 화공, 직조공, 석공 등의 기술적 직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문적 기능의 비법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가정에서 그저 모방과 훈련의 반복에 의해 이어져 내려왔다.

중세 그리스 시대에는 전문적인 예술가를 존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미술교육은 노동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나 다양한 장인들의 영향으로 새로운 길드가 형성되면서 예술교육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길드를 통하여 미술교육이 엄격한 도제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르네상스의 시작과 함께 종래의 교육 사상 및 교육 실제의 모든 면에 큰 변화가 온다. 예술가를 천재로 여기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이 태동했으며, 미술교육의 새로운 형태가 이 같은 예술가의 지위와 조화되어 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르네상스의 미술교육은 천재의 사고에 알맞은 교육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육 방법은 결국 예술원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예술원에서는 미술이라는 학문의 보편적 지식 추구를 중심으로, 미술 실기의 이론과 철학에 대한 지식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발전되었다.(Arther D. Efland, 박정애 역, 1996, p. 52)

교회의 분리와 전쟁, 그리고 사회의 대변동으로 인해 르네상스 운동이 막을 내리게 되고, 대신 정치적 절대주의와 과학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648년 설립된 프랑스 예술원은 회화와 조각을 가르쳤다. 아카데미는 회원들에게 미술법칙을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생물 드로잉 코스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였다. 아카데미 과정은 상급과 하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급학생들은 교수들의 드로잉 작품을 모사했고, 상급학생들은 석고상 드로잉과 모델 드로잉의 순서로 이어졌다. 아카데미 강의는 원근법과 기하학 그리고 방법의 규칙을 형식화하는 회화의 분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학생들에게 실기와 이론이 고루 이루어진 완전한 교육체계 속에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훗날 모든 미술학교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임정기, 이성도, 김황기, 2006, p. 57)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고 이것들은 공예작업장을 대신하게 되었다. 과학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격조 높았던 예술품이 사라지고, 값싼 제품이 생겨났다. 이러한 값싼 대량물품에서의 예술적 특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프랑스는 지역산업체의 필요에 의한 지방 예술원을 설립하여 산업미술교육문제에 접근했다.(Arther D. Efland, 1996, p. 79)

나. '기하학적 방법'과 '감수성의 발달'간의 토론으로서의 미술교육

1878년 프랑스의 초·중등교육에서 미술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학교의 일반교육 속에서 미술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영국, 독일에서의 사고 풍조의 영향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데생교육을 생각하게 되었다. 방법은 '기하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모든 사물에서 기하학적 요소를 찾고, 측정하며 상상하는 것에서 먼, 이성적이고 기하학적 방법으로, 손 기술의 능력과 과학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사고체계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대립되었던 두 이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유젠느 기욤(Eugène Guillaume)의 방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데생교육도 하나의 학문으로 기하학이 그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고, 그 교육에도 문법과 알파벳 식으로 학습할 단계가 있어 점진적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체계화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예술을 위한 예술'에 반대하여 유용성과 도덕성의 측면, 이성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미술교육을 학교교육과 타협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이 관점은 정신적 실증주의자 펠릭스 라베송(Félix Ravaisson, 1813-1900)의 이론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그는 예술에서의 지식적인 특질은 과학적인 지식과 같이 체계화될 수 없으며 이성과 분석능력 보다는 감성과 직관의 능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다. 데생은 기하학, 시각 법칙에 관한 지식을 기저로 하나 이는 '예술에서의 접근'이라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예술교

육이란 미적 정서와 취향의 교육이라고 역설하였다.(이은적, 2001, pp. 95-96)

다. 자연관찰로서의 미술교육

1909년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 동안의 교육학 사조의 영향으로 획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진다. 개정 내용은 첫째, 학생들의 감정과 해석의 자유, 개개인의 고유한 성향의 존중과 이를 고무하도록 하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학생들이 동기화되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 단순한 여가로서나, 미술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문화의 일면적인 도구로서 개인발달의 교육을 강조한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연을 교육의 기저로 하여 학습영역을 확대하고 학교를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을 꾀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화, 보고 그리기, 기억하여 그리기, 삽화, 만들기, 지리와 관련한 그림 그리기 같은 다양한 작업 활동이 소개된다.

이 시기에는 ‘기하학적 방법’에서 멀어지고, 라벵송이 주창한 감수성 발달의 중요성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예술 또는 과학으로서 미술교육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술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사고력, 직관력과 상상력의 조화로운 형성을 꾀하고 어린이들이 지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연적인 표현 언어로 여겨지게 되었다.

교육의 기본 원칙은 자연을 직접 탐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관찰과 색의 사용이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관찰’이라는 방법은 에밀을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는 ‘자연’뿐이며, 모델은 실재하는 사물뿐이라는 루소의 교육이 미술교육에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물의 정확한 관찰과 재현이 주된 학습내용이고, 이 관찰이라는 지적인 훈련을 통해 어린이가 학문적인 의식을 형성해 가도록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루소의 사고는 어린이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중요시하고 그의 조형작품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교육적 사고의 기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술교육은 당시의 예술현상에서의 모더니즘 경향을 외면한 채 미술세계와 다소간 독립적으로 여겨지게 되기도 하였다.

라. 교육심리학적 요소를 강조한 미술교육

루소가 어린이 심리 연구에 길을 열면서 20세기에는 어린이만의 고유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 하에 어린이들의 작품도 인지심리발달이론, 혹은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의 묘화능력을 인지적, 지각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발달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이런 발달 단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고, 또한, 정신병리학적 또는 심리요법과 관련하여 어린이 미술을 보게 되었다. 교사들은 어린이의 자유화와 상상화를 통해 어린이의 심리, 정서 발달 상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촉구되었고, 미술표현을 통한 억압된 감정의 분출 또는 치료도 기대하게 되었다. 이는 예술을 위한 교육으로서 보다 예술을 통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미술교육에서의 심리학적 측면의 강조는 상당부분 피아제(Jean Piaget)의 발생학적 인식론 연구의 영향으로, 어린이 태생을 인지발달단계에 맞추어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었으나, 프랑스에서는 피아제의 인식론을 지나치게 도식화, 단순화하여 적용하였다는 비판도 생기게 되었다.

마. 실용주의 관점의 미술교육

20세기에 미술교육 개념을 형성하는 여러 담론 중의 하나는 미술교육에서 실용성을 찾는 것이다. 콩트(Comte Auguste)에 이어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가장 유용한 지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연코 과학이 그 최상의 위치에 서게 되고 예술은 하위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 스펜서의 저서가 교육계에 보급되고 그 영향력으로 예술교육은 다른 교과 지식에 비해 더욱 소외되었고 다른 지식과의 관계 속에 예술교육의 실용적인 측면을 찾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기욤의 미술교육론과 같이 미술을 통한 과학적 의식의 발달이라는 간접적인 실용성도 부각되게 된다. 스펜서의 이론으로 예술표현에 많은 실용적인 가치들이 부각되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술과 교과교육의 개념을 형성하는 사고 체계에서 결코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다.(이은적, 2001, p. 97)

마. 창의성의 미술교육

창의성이란 말은 19세기 말부터 미술교육에 등장하였다.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조화로운 인격 함양에 기여하려는 미술

교육으로 20세기 초 치제(Franz Cizek)이 자주 사용하였는데, 로웬펠드에 이르러 미술교육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68년 개혁을 전후로 하여 어린이의 창의적 본성을 찬미하는 담론이 다양화되고, 어린이의 창의적 활동을 고무시키는 학습활동에 대한 연구가 따르면서 학교라는 체제는 어린이의 창의성을 고무시키기 보다는 억압하고 교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하게 된다.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와 세계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는 새로운 지식체계를 고안하기 위해 창의력이 있는 인재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창의력을 지닌 인간형성이 당연히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가 된다. 이런 맥락 속에 예술교육은 긴 사전학습을 전제로 해야 하는 다른 교과와 달리 어려서부터 창조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과로서, 창의성의 신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과로 여겨지게 된다. 1960년대 후반 프랑스 미술교육 개혁의 중심 이론은 창의력의 신장이었고, 이의 강조가 표현기술이나 미적인 규범에 구속됨이 없이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미정, 2011)

2.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문화와 예술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로 프랑스를 꼽는 데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가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나라로 일컬어지는 것은 일찍이 문화 유산과 예술품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온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성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프랑스에서는 미술 분야는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수집되거나 보관, 후원되었으며 미술교육의 목적 또한 그러한 소수 엘리트들의 소양을 기르는데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어린이의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는 일들은 극히 드물었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도 무관한 것이었

다. 중·고등학교에는 미술 및 음악수업이 있었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러한 과목들을 겸해서 가르치는 식의 피상적이고 비전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예술수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전미술이나 고전음악을 다루는 것이었으므로 동시대의 예술에 대한 교육과 관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968년, 학교교육 안에서의 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학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한 학회에서 교사들 및 학자들은 학교 내 예술교육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수립하게 된다. 예술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하고, 동시대의 예술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술교육은 다른 교과 교육과의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교육자들과 관계되어야 하고,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박지은, 2005) 이러한 원칙들은 비록 즉각적으로 교육 현장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훗날 프랑스 문화 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이르러 학교에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10% 열린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수업시간의 10%를 학교 외부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전통적 교과목을 보완하게 된 것이다.

1983년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문화 예술 전문인들이 수행하는 예술 활동의 정당성이 최초로 공식 인정되었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수업과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8년에는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여러 예술과목들을 개설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92년에는 문화부와 교육부가 통합되어 보다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손영희, 2010, pp.16-17)

이후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이 지금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이상 예술을 교육체계의 핵심이 아닌 보충적 존재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한 후에 배우는 과목 정도로, ‘기초’과목들에게 시간을 양보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실기활동을 보편화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

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는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예술작품을 일찍 접하게 하기 위한 곳으로 학교보다 나은 곳은 없다. 가정 및 사회 환경에 따라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므로, 학교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감성과 이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감성과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발될 때 어린이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또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은 다른 형태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과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과목들을 더욱 생기 있고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 활동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합창, 연극, 무용 등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은 창의적이고 건설적이며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박지은, 2005)

이러한 교육원칙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classe a PAC: projet artistique et culturel)’이다. 이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교육 전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교와 문화기관들의 협력 안에서 예술가,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중재자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형식이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특징은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라는 큰 범주 아래 각 지방의 여러 관련기관들의 공조로 기획,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지역 문화기관에 투자하여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기자재들을 모두 학교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에 따르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문화기관의 조건들을 활용하면서도 교육부의 지도방 침과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3. 프랑스 미술교육의 현황

프랑스는 예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예술적인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략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국가

이다.(김희영, 1994, p. 309) 자크 쉬락(J. Chirac)대통령은 1995년 선거 캠페인 당시 예술 교육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삼았다. 그 실천을 위하여 1996년 6월 13일 포루 위원회의 교육 개혁안(Project Fauroux)이 발표되었고, 1997년 9월 신학기부터 적용되었다. 그 내용은 의무 교육 연령인 만 16세에 누구나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국민 공통 분모로서의 필수 지식을 갖추기」에서 6가지의 기초 지식을 규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체 단련과 예술 감각’이다.(Jean-Michel, 1997, p. 132)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프랑스 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의 위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미술교육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프랑스의 교육체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 교육체제

프랑스의 교육은 초등 교육(enseignement élémentaire), 중등 교육(enseignement secondaire), 고등 교육(enseignement supérieur)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초등 교육은 다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학령전 교육(enseignement pré-élémentaire)과 초등학교 교육으로 구분된다. 중등 교육은 중학교에서의 전기 중등 교육과 고등학교에서의 후기 중등 교육이 있다. 고등 교육은 일반 대학교(université)에서의 교육과 기술 전문 대학(Institut universitaire technologique : IUT)등에서의 전문 기술 교육과 그랑제꼴(grandes écoles)에서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다.

프랑스의 초·중등 학교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3세 이상(경우에 따라 2세도 입학 허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3년)과 초등학교(5년제), 중학교(4년제), 고등학교(3년제)로 구분할 수 있다.

<표IV-1> 프랑스의 일반적인 교육제도(이규민, 2000, p. 3)

구분	학 교	교육기간	과 정	비교 (한국)	
고 등 교 육	Université 대학교	2-4년 이상	3e cycle	Doctorat	박사
		1-2년	cycle	D.E.A	박사과정 수료
		1-2년	2e cycle	Maîtrise	석사과정 석사
			cycle	Licence	학사과정 학사
		3년 (만18세 이후)	1er cycle	2e année : DEUG 1er année : DEUG	교양 학부
중 등 교 육	Lycée 고등학교	3년 (만15-17세)	Terminal (최종학년)	고3	
			1er (1학년)	고2	
			2e (2학년)	고1	
	Collège 중학교	4년 (만11-14세)	3e (3학년)	중4	
			4e (4학년)	중3	
			5e (5학년)	중2	
		6e (6학년)	중1		
초 등 교 육	École Primaire 초등학교	5년 (만6-10세)	CM 2 (중급과정2)	초5	
			CM 1 (중급과정1)	초4	
			CE 2 (초급과정2)	초3	
			CE 1 (초급과정1)	초2	
			CP (준비과정)	초1	
학 령 전 교 육	École Maternelle 유치원	3년 (만2, 3-5세)	GS (상급반) MS (중급반) PS (하급반)		

<표IV-1>의 프랑스 학제를 볼 때, 프랑스 중등 교육의 학년 배열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학년에서부터 역으로 시작하여 5, 4, 3, 2, 1, 최종학년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1학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학년 배열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기가 3월에 시작되지만, 프랑스에서는 9월에 시작되는 것도 다르다. 도표가 나타내는 연령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을 기준으로 한 연령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만6세에서부터 16세까지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료(프랑스고교 1학년 수료)한 것에 해당된다. 이하 본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의 학제에 따라 프랑스 초등학교 5년을 ‘초1’ ‘초2’ ‘초3’ ‘초4’ ‘초5’로 표기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5년제인 초등학교는 2개의 과정, 즉 기초학습과정 CP, CE1(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에 해당)과 심화학습과정 CE2, CM1, CM2(우리나라 초등학교 3, 4, 5학년에 해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다. 주당 수업시수는 26시간으로 수요일에는 수업이 없고,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의 교과편성을 보면, 프랑스어, 산수, 역사, 지리, 시민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및 체육교육 등이며, 특히 자국어인 프랑스어 교육(주당 9시간)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CE1(초2)부터 프랑스어 시간의 1~1.5시간을 외국어 교육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4년으로 적응과정인 6학년(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해당), 중간과정인 5학년과 4학년(우리나라 중학교 2, 3학년에 해당), 진로지도 과정인 3학년(중학교 4학년에 해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 및 기술고교나 직업고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진로지도 과정은 학생의 진로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수업시수는 필수와 선택을 합쳐 주당 26-33시간이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치르게 되는 중학교 졸업자격 국가고시(Brevet)는 중학교 졸업생의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일 뿐, 고등학교 진학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군별에 따른 본인의 희망 및 내신 성적과 함께 고등학교 입학에서 Brevet의 성적이 참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진학준비 및 각종 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3년으로 일반계, 기술계 및 직업계의 2학년(우리나라의 고1), 1학년(고2), 최종학년(고3)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 및 기술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대학입학자격시험)의 계열을 결정하는 단계(우리나라의 고1)와 바칼로레아(이하 Bac)준비를 위한 단계(우리나라의 고2, 고3)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는 직업계 Bac 및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95년부터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Bac은 크게 일반 3계열(L: 문학, ES: 경제 및 사회, S: 과학)과 기술 4계열(STI: 산업공학, STL: 실업공학, SMS: 사회보건학, STT: 서비스공학)로 구분된다. 85년에 신설된 직업계 Bac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지만, 직업 훈련과정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나. 프랑스 초등학교의 미술 교육과정

중학교 이전 과정인 초등학교는 각 어린이가 학업을 통해 배운 것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유치원 과정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삼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어린이가 중학교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개인적 학업방식, 지식, 기술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에서 구성하는 가치들과 문화적 토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며, 자율적인 지성의 기초 요소들과 새로운 학교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상에 적합한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이규민, 2000)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준비 과정, 초급 과정, 중급 과정별의 세 책자가 개발되어 있고, 전체적인 교육목표는 명기되지 않은 채 각 교과별로 목표가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육부의 또 다른 교육과정에 관한 문서에 있다.

요약해 보면 첫째, 읽기·쓰기·언어 표현 등 기초학습 기능의 습득을, 둘째, 전인적인 자질의 육성을 위한 교육을 셋째, 가족과 함께하는 도덕 및 공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미술에서 회화적인 요소의 창작활동과 공예적 활동인 공작이 분리된 점도 유럽 여러 나라들과 유사한 점이다.

미술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재량이 돋보이는 것이 프랑스 뿐만은 아니지만, 루브르 미술관이나 중소 도시의 미술관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솔교사와 함께

작품 감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아이들이나 교사가 늘 똑같이 미술관에 가는 것은 아니겠으나, 자주 미술관을 관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방안이나 교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명화나 명품을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미술교육이라 판단된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예술교육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지침(CNDP, 1995, pp.153-156; 차지언, 2005, pp.35-36에서 재인용)

예술교육은 음악 교육, 조형 예술, 연극, 연기, 무용, 영화, 사진, 건축과 같은 과목들의 총체이다. 학교가 교육적 수단으로서 음악과 조형 예술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예술, 표현수단, 테크닉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경우, 어린이들에게 행위의 즐거움을 보장하고, 취미를 배양시키며, 예술적·문화적 유산들에 접근하고, 표현과 창조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조형예술(미술)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형 예술(미술)은 어린이에게 창조하고, 또 형태, 색깔, 재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들은 우주에 대한 미학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데생, 회화, 판화, 조각 및 새로운 표현 테크닉을 통하여, 어린이는 재료 및 오브제에 대한 표현 방식을 발견하고 정제시켜 나간다. 일반적으로 이 교육은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의 표현 능력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욕구를 개발시키며, 첫 예술 문화를 스스로 구축하게 하는데 있다.

조형적 표현은 어린이가 재료의 저항에 직면했을 때부터, 그리고 단순한 규칙으로부터 그 자신이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교사는 어린이가 제스처(선 긋기, 다양한 조각, 행동에서 글쓰기로의 이행과정)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한다.

교사는 어린이들이 소수의 정예 작품들(명작들)과 친숙하게 만든다. 그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교사는 미학적 판단과 단순한 개인적 기호를 구별해 낼 줄 알게 해준다. 어린이로 하여금 모든 것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 주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복제품, 슬라이드, 포스터, 모형 등과 함께 어린이의 개인적 혹은 협동 작품으로써 학급 박물관을 만들게 한다. 또 다른 학문들의 성과도 이용한다.(특히 과학과 기술, 역사와 지리, 그리고 프랑스어에 관하여) 교사는 지역 예술 활동에 어린이들을 연계시키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외부의 경연대회 참가는 교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그 내용면에서 본다면

CP과정(초1) : 유치원의 연장선상에서, 어린이는 감각적 발견에 매진하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개발시키며,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 다양한 도구들<연필, 매직(펠트), 가위, 붓>을 동원하여 재료와 다양한 매체(종이, 보드지, 천, 나무, 돌)에 표현하는 작업
- 기술적 가능성의 탐구(데생, 회화, 조소등 공간 속에서의 표현)
- 초벌 칠하기, 조소, 찍기, 자연적 혹은 인공적 오브제의 탐구
- 기호, 픽토그램(그림기호), 글쓰기의 연구

CE과정(초2, 3) : 어린이는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과 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조직적인 탐구에 뛰어들게 된다.

- 형태, 색깔, 재료들을 동원한 놀이
- 상상적인 것의 표현 : 미적 계획의 개념화와 실현(오브제와 이미지의 변형, 부조를 통한 표면효과의 활성화, 면의 재현에서 볼륨있는 입체의 재현으로의 이행)
- 작업들의 소개(화면 구성)
- 이미지들, 오브제들과 다양한 시대, 기원, 장르, 스타일의 기존 걸작 복제품과의 점진적인 친숙화
- 어린이 개인 혹은 학급의 개인 박물관을 채울 재료, 오브제, 이미지의 개인적 수집

CM과정(초4, 5) : 어린이는 작품을 감상하고, 창조적 과정을 채택할 수 있는 테크닉과 방식을 이때 확보한다.

- 이미지, 오브제, 재료에 대한 단순한 조형적인 작업의 실험
- 테크닉<목탄·연필·모전(펠트)데생, 회화, 판화, 조소, 조각>과 적용 방식의 확보

- 하나의 계획(벽 장식, 방이나 놀이 공간의 개조)을 실현할 목적으로써, 연출 장면에 대한 조직적 탐구(자료의 몽타주, 사진 장면 등)
- 미술사적 작품 분석 혹은 현대 조형 작품의 분석(형태적 양상, 테크닉의 질, 의미, 문화적 가치)
- 공간의 재현
- 학급 박물관의 구성과 전시의 실제

2) 프랑스 초등학교의 교과편성과 수업시수(CNDP, 1995, p12; 이규민, 2000, pp.11-12에서 재인용)

<표IV-2> CP, CE1 (프랑스의 초등학교 1, 2학년) : 기초 사이클

프랑스어	9시간
산 수	5시간
세계 발견과 시민 교육	4시간
예술 교육과 체육	6시간
개별 지도 학습	2시간
총 계	26시간

주. 외국어 1시간은 CE1(초등학교 2학년)과정의 프랑스어 9시간 중에 편성될 수 있다.

<표IV-3> CE2, CM1, CM2 (프랑스의 초등학교 3, 4, 5학년) : 심화 사이클

프랑스어와 외국어	9시간
산 수	5시간 30분
역사-지리, 시민 교육, 과학 및 기술	4시간
예술 교육과 체육	5시간 30분
개별 지도 학습	2시간
총 계	26시간

주. 외국어 교육은 1시간 30분의 한도 내에서 프랑스어 9시간 중에 실시될 수 있다.

위 도표에서 보면 프랑스의 현 초등학교 교과 편성의 특징은 학과 영역별 편제로 제시된 점이다.

또한 아동들에게 스스로의 학업 리듬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개별 지도 학습’이 주당 두 시간 배정되었다. 특히 자국어인 프랑스어 교육이 주당 9시간으로 강조되고 있다. 조기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초 학습 사이클인 CE1(초2)에 프랑스어 시간의 1시간을, 심화 학습 사이클(초3,4,5)에서는 프랑스어 시간의 1시간 30분을 외국어 교육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 시수의 21~23%인 예술 교육(음악, 조형예술)과 체육시간은 사이클 별로 주당 5.5~6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주당 수업시간은 26시간이다. 학교는 수요일 하루(어떤 학교는 목요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쉰다. 26시간 교육 외에 보충적으로 체육, 예술, 문화 활동 실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과외 활동은 지역 단체 또는 협회 책임 하에 있다. 학교들 대부분이 시 또는 협회에 의해 조직되는 학교 급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이후부터 초등학교생들은 집에서 해야 할 숙제가 더 이상 없으며, 숙제는 학교에서의 일과 중 30분씩 교사의 개별적 도움으로 교과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 학업 리듬의 고려도 현재 프랑스의 교육 개혁 사안의 하나이다. 시간표 구성시 주의 집중도가 높은 오전에는 주로 인문 교과를, 점심 식사 직후에는 예술, 오후에는 체육 등 적절한 교과를 배치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초등학교 주 4일제 수업으로 개혁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인의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교육 개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구자익, 정광희, 전효선, 정영순, 1998, p. 178)

다. 방과 후 활동과 여가 활동 중 미술교육

프랑스 파리의 초등학교는 소수의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수업이 없고, 평일 09:00시부터 16:30분까지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의 방과후 활동은 수업이 있는 날(토요일 제외) 16:30분부터 18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블루 아틀리에 (Ateliers bleus)’와 수업이 없는 날(수요일과 주말, 단기 방학 등)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으로 구분된다. ‘블루 아틀리에’의 목적

은 아이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미 활동과 휴식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아뜰리에에는 파리의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약 7,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각종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이다.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음악, 미술, 연극, 과학 등에 심취한 아동들에게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다. ‘블루 아뜰리에’들은 대규모 문화 단체나 협회의 지원을 받아, 학업이 있는 날 방과후인 16:30분부터 18시 사이에 개설되는데 그 영역은 스포츠 영역과 문화·예술 영역 등이다.

스포츠 영역은 245개 이상의 파리의 초등학교에 1,253개의 ‘블루 아뜰리에’가 개설되어 있다. 이 아뜰리에에는 경기 참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평소 학교에서 즐기기 어려운 스포츠 - 미니 테니스, 수영, 무용, 펜싱, 승마, 유도, 동양무술 등 - 를 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뜰리에들은 학교 안에서 자체 개설되기도 하고, 가까운 스포츠 센터(수영장, 체조장, 경기장)에 개설되기도 한다. 각 아뜰리에에는 하나의 협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현재 파리에 69개의 학교협회, 24개의 전천후 경기장, 45개의 특화 센터가 50개 이상의 스포츠 종목을 제공하고 있다. 가격은 주당 참가 아뜰리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기당(3개월) 60-390프랑(약 14,400원 - 93,600원)사이이다. 하지만 가족의 소득정도에 따라 완전 면제에 이르기까지 할인폭이 다양하다.

문화·예술의 영역은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은데, 개학시 개설되는 숫자만도 550개에 달한다. 과학기술탐구, 천문학에서 컴퓨터 그리고 조형예술(회화, 조각, 공예 등)에 이르기까지 강좌가 아주 다양하다. 연극도 수많은 극단들이 양질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블루 아뜰리에’는 마찬가지로 음악적 자질도 계발시켜 주는데, 특히 현대 음악 쪽으로 여러 강좌가 개설된다. 또한 외국어 및 외국 문화, 다른 생활 양식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강좌도 마련된다. 이 경우에 파리시는 여러 협회들에 의뢰하여 파리 어린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시킨다. 담당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하며, 소그룹을 이루어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기도 한다. 가격은 스포츠 영역과 비슷하며, 완전 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 아뜰리에에는 주당 1시간 30분씩 강좌를 진행하며 30주 동안 진행된다.

학업이 없는 날(특히 수요일)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은 단체 관람이나 외출 외에도, 학교 부설의 여가 활동 센터가 있다. 그곳은 예술 활동과 게임을 위한 공간이

기도 하다. 파리의 550개의 여가 활동 센터는 모든 구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애초의 설립 취지는 수요일과 주말 그리고 단기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익숙한 장소 -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학교 -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즐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격은 가족의 소득 정도에 따라서 현재 38F, 32F, 25F, 12F, 전액 면제 등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요일에 수업이 없다는 사실은 프랑스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날 파리의 거리나 박물관에서 선생님들로 에워싸여 조잘대며 웃고 있는 아이들이나, 지하철한 칸을 가득 채워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을 갑자기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이 모습은 이동 중인 여가 활동 센터인 것이다. 수요일의 이 여행자들은 박물관에서 마련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아뜰리에로 향하고 있거나, 파리의 유적이거나 전시회를 관람하러 가는 길이다.

파리시 대부분의 부모들은 복합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파리의 문화센터들(33개 - 250가지 이상의 종목), 여가 활동 센터들(550개), <아다 ADAC> 아뜰리에(400여개 중 아동을 위한 곳은 40여개 - 27가지 이상의 예술 종목)등에 아이들을 등록시키고 있다. 파리의 20개 구청 가운데 17곳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시립 음악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학업이 없는 날에 자녀들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시켜줄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서,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과 경쟁력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리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알맞은 시립 콘서바토리(음악원)에서부터 스포츠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이규민, 1998, p. 13)

4. 프랑스 미술교육의 특성

프랑스 미술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토대로 그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손영희, 2010)

첫째, 사회적으로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미술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방법으로 여겨지며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술의 사회적인 효용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의 학교는 다양한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 미술교육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의 미술교육은 단순히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교육부, 문화통신부 그리고 각종 미술관 등의 관련시설과의 협력 하에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미술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높은 인식이 미술교육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둘째,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지속성과 연계성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는 교사용 지침서에 각 학년별 교육과정을 해당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재용, 관련 용어를 비롯한 교육자료 등을 교사에게 제시하여 학년별 국가 공통의 교육내용과 학년간의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내용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미술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한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작품의 제작이 끝나고 평가시간이 되면 작품을 제작한 학생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이 잘 제작되었는지 아닌지가 평가의 중점적인 사항이 아니다. 평가를 받는 학생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자신의 작품 제작을 수행하였는가, 그리고 작품 설명시 프랑스어를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웠던 미술용어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가 등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 미술학교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비평하고 분석하는 것은 꾸준히 진행되어온 미술관 방문과 자료를 이용한 감상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넷째, 미술관 견학수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계성이다. 학생들은 견학수업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에 참여하고 느낄 수 있다. 예컨대 ‘그림자’를 이용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보고,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그림자를 만들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다시 스케치한다. 자신이 스케치한 그림은 자신의 작품이 되고, 소그룹의 학생들과 자신의 작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같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과학적이고 미적인 활동을 통해 미술이 훌륭한 테크닉이나 솜씨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전문가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상임을 체험한다.

다섯째, 문화 예술 강사를 통한 전문적인 교육이다.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하나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업(class á PAC: project Artistique et Culturel)¹⁾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학교와 문화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매개자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가 열릴 때 전시 작가라던가 지역 화가를 섭외하여 전시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작가 연구와 작품 감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된 용어들을 배우고 실기 작업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신의 작품을 배운 용어들을 응용하여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하도록 한다.

이렇게 프랑스 현 조형예술교육의 특성은 ‘미술을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교육’ 그 어느 한쪽으로 밀리지 않고 효과 있게 양립시키는 것을 꾀한다는 것이다. 미술 작품과의 관련이 단순히 감상 차원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실기를 고안함에 있어서도 점점 더 미술 현상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탐구하게 된다.

1)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 초, 중, 고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전 기간에 걸쳐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이성적 뇌를 발달시키는 읽기, 쓰기, 계산 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미술, 음악을 통한 상상력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자극하는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유적과 프랑스 문화 및 역사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V.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교육에 대한 비교

1.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프랑스는 초등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지식을 획득하는 법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용화되는 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초등교육을 그 이후 이루어질 모든 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계로 본다. 학교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핵심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충실한 문화적 자료와 함께 읽기와 쓰기, 프랑스어와 수학의 체계적인 훈련을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프로그램은 각 사이클에서 획득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 방법과 접근법은 학급 특성에 맞추어 선택, 조정할 수 있도록 교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이 획득해야만 하는 핵심 지식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2학년과 3학년에 이루어지는 국가 평가는 이 단계의 학생들이 성취해야할 정기적인 지식평가를 하도록 한다.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가. 한국과 프랑스 학제

<표 V-1>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제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초등학교	6년 (만6-11세)	1학년	기초학습 사이클	CP(준비과정:초1)
		2학년		CE1(초급과정1: 초2)
		3학년	심화학습 사이클	CE2(초급과정2: 초3)
		4학년		CM1(중급과정1: 초4)
		5학년		CM2(중급과정2: 초5)
		6학년		

<표 V-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5년제인 초등학교는 2개의 과정, 즉 기초 학습 사이클인 CP, CE1과 심화 학습 사이클인 CE2, CM1, CM2로 나누어져 있다. 초등 교육은 무상이자 의무 교육이며, 6세부터 10세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업 연한은 보통 5년으로서, 이 기간은 어린이의 지식 습득 정도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근처의 학군에 어린이를 등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인 것에 반해,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만 16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유치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 까지 국·공립학교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거의 학비가 없는 무상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학이 여름, 겨울, 봄 이렇게 3번인 것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각 학교의 방학이 무려 6-7번이나 된다. 학생들의 학업 리듬을 고려하여 7주까지 공부하고 중간 중간에 약 1-2주간의 방학이 실시된다. 그리고 중등학교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은 평일의 방과 후 활동, 수요일, 주말, 단기 방학 등을 통하여 예·체능 활동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차지언, 2005, p. 59)

나. 한국과 프랑스 교육 시수 비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미술과 시간배당 기준을 보면 연간 최소 시간수로 68시간을 배당받고 있다. 이것은 34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주일에 2시간 미술 수업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프랑스 미술관련 교과와 편성 시수를 살펴보면 주당 수업 시수는 26시간이며 예술교육(음악과 조형예술)과 체육은 기초 학습 사이클인 CP, CE1에서 주당 6시간을 심화 학습 사이클인 CE2부터 CM2까지는 주당 5.5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교과편성이 '예술교육과 체육'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음악, 미술, 체육의 시수를 합하여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음악, 미술, 체육의 배당시간은 주당 7시간으로 프랑스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배당되어 있다. 하지만 교과를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주당 3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미술교육의 목표 비교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의 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보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목표는 3, 4학년군과 5, 6학년군으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부가 1995년에 발간한 ‘초등학교 프로그램 (Programmes de l'école primaire)’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며, 각 단계의 학습 사이클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기술 및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지침서를 기준으로 한다.

<표 V-2> 한국과 프랑스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목표

구분	한국	프랑스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목표	3, 4 학년	(1) 시각적 대상이나 현상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2) 표현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3) 미술 작품과 미술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1)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의 표현 능력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2)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욕구를 개발시키며, (3) 첫 예술 문화를 스스로 구축케 하는데 있다.
	5, 6 학년	(1) 시각적 대상이나 현상에서 미적 특징을 발견한다. (2)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기초를 익힌다. (3) 미술 작품을 분석하고 미술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미술교육 목표는 <표 V-2>와 같다. 한국의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총괄 목표 아래 학교급별 구분하여 초등학교는 두 개의 학년 군으로 나누어 목표를 제시하였다. 반면 프랑스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미술의 총괄 목표를 위와 같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학습 사이클 별 습득해야 할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 학습 사이클(초1, 2)에서는 어린이

들로 하여금 감수성, 창조 능력을 개발시키고, 예술 작품을 발견하고, 예술가들의 작업 방식을 파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심화학습 사이클(초3, 4, 5)에서는 창작과 표현이라는 개념에 따라 예술 작품의 관찰이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창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며, 예술가들의 작업 방식의 양상을 이해하여 자신의 첫 미술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미술교육의 내용 비교

한국의 교육내용과 프랑스의 교육내용을 비교한 것은 <표V-3>과 같다. 프랑스에는 미술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프로그램 지침서에서 구성한 예를 같이 비교하였다.

<표V-3>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역을 미적체험, 표현, 감상으로 나누어 내용을 체계화 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는 그 내용이 테크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형태와 색깔의 인식, 재료의 선택과 배치 등의 테크닉을 통하여 보는 법(미학적 인식)을 배우며, 데생, 회화, 판화, 조각 및 새로운 표현 테크닉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재료 및 오브제에 대한 행동 방식(표현)을 발견해 나가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술작품들과 친숙하게 만들어 미학적인 판단과 단순한 개인적 기호를 구별(감상)해낼 줄 알게 하여 준다.

이렇듯 두 나라의 내용적 측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랑스는 표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V-3> 한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미술교육 내용

구분	한국		프랑스 프로그램 예
	영역	3, 4학년	
미적 체험	(1) 자연 환경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기	(1) 자연 환경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기	(1) CP과정(초1) 유치원의 연장선상에 서, 어린이는 감각적 발견에 매진하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개발시키며,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2) 시각 문화 환경 시각 문화 환경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기	(2) 시각 문화 환경 시각 문화 환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기	
초등학교 미술 교육	(1) 주제 표현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주제 표현하기	(1) 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2) CE과정(초2, 3) 어린이는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과 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조직적인 탐구에 뛰어들게 된다.
	(2) 표현 방법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하기	(2) 표현 방법 여러 가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방법을 익혀서 표현하기	
내용	(3)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하기	(3) 조형 요소와 원리 주제와 표현 방법에 알맞은 조형 요소와 원리로 표현하기	(3) CM과정(초4, 5) 어린이는 작품을 감상하고, 창조적 과정을 채택할 수 있는 테크닉과 방식을 이해한다.
	(4) 표현 과정 표현 과정에 관심 갖기	(4) 표현 과정 표현 과정을 탐색하기	
감상	(1)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이해와 감상 활동에 관심 갖기	(1)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감상하기	
	(2) 미술 문화 미술 문화에 관심 갖기	(2) 미술 문화 미술 문화의 특징과 중요성을 이해하기	

2. 한국과 프랑스 미술교육의 성격 비교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미술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나라 미술교육의 성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가.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미술교육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관심과 인식에 대한 차이이다. 프랑스에서 미술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견인 수단이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미술교육은 끊임없는 관심이며 훌륭한 예술가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회에서의 미술의 효용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미술학계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미술교육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시제도에 필요 없으니 미술교육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대학 입시에 필요한 주요 과목의 학습을 위해 수업시수마저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개정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미술수업을 줄여나가는 교육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나. 미술교육을 위한 환경적 차이

미술 교육을 위한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차이는 크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문화유산 및 예술품을 보존하는데 힘써온 결과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에 오래된 성과 성당 등의 건축물들과 미술관 등이 있어 쉽게 유명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는 미술교육을 위한 특별한 공간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어 미술교육을 위한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수업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돕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를 제외 한 시골이나 소도시,

어촌 등에서는 직접 전시장에 가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학교에는 미술교육을 위한 공간 및 다양한 기재와 도구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정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미술교과에 관련된 미술실 환경 정비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다. 미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차이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위해 교육부, 문화통신부를 비롯해서 미술관 등의 여러 문화 예술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제공 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시당국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교사가 아닌 전문예술가, 예술 학교의 학위를 지닌 학생 또는 예술가 참여자 양성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예술가의 학교교육의 참여는 예술문화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대부분 학교와 담당교사의 몫인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는 있어도 막상 정규수업인 미술 수업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한국과 프랑스의 학제를 비교하면서 프랑스 교육에 대해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모든 초등학교는 수업이 없는 수요일과 단기방학이 있어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어 학생들의 미적체험 활동과 감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있다.

라. 교실 안에서의 기준의 차이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은 다른 형태의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과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다른 과목들을 더욱 생기 있고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의 미술 수업에서, 교사는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일반적인 이해의 폭 안에서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여타 과목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이때는 다른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개념이나 작용 등에 유의한다. 예술 작품에 관련하여 조형예술 쪽에서 이루어지는 접근은, 특히 역사적인 측

면이나 문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예술적인 형태와 관련된 요소들을 강조한다.(박미정, 2011)

마. 교사의 자율성 차이

프랑스 미술수업은 일정한 틀이 없다. 교과서도 없고 교사용 지도서도 없다. 교육부에서 편찬한 교육지침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미술의 요소와 원리, 용어를 명시할 뿐이다. 수업의 내용과 연간계획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미술은 아동의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그리고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해야 하는 체험교과이며, 시각적인 활동의 교과이다. 또한 미술이 요구하는 능력은 이성보다는 감성, 좌뇌 보다는 우뇌에 작용하는 교과이다. 이런 미술의 특수성 때문에 교사의 지도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미술교과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미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에게 인간 교육을 행하는데 의미가 있다.(김동영, 1993, p. 275) 그러므로 교사는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로 수업에 임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아동에게 미치지 않도록 자유로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정된 지도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교과 이상의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미술 수업에서 교사는 아동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고, 영감을 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정, 아동들을 향한 애정, 교사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찾는 태도는 수업에 대한 만족과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

교사의 자율성이 늘어나면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아동들의 상상력, 창의성을 신장시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 평가방식의 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 권장되고 있으나 실제 교실에서는 작품 결과의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주관에 의한 작품의 우, 열을 가르는 것이다. 프랑스는 평가를 수업과 동등한 학습의 하나로 여긴다. 교사는 단순

한 작품이 아니라 학습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학생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한 의미 파악 등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을 프랑스어는 물론 수업에서 배운 용어들을 자신의 작품설명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서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 교사의 지도능력 차이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며 교육력이 가장 크고 가소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미술 교육은 미술이라는 교과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정서교육, 창의성 교육, 조형성 교육, 지적 교육, 자아개념 형성 및 실현교육이며, 초등학교에서의 아동들은 미술 수업에 대한 흥미가 대단히 높다. 초등학교 미술과 수업은 교사의 지도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예체능 교과에 대해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특별한 지도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술 수업은 교사 주도적이기보다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 비해 수월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미술 교과의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지도하고자 하여도 어려움을 갖는다.

프랑스 또한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교과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정의에서 보이듯이 Polyvalence(여러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를 초등교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사의 Polyvalence는 초등학교 특수성과 관계가 있으며, 여러 교과목의 단순한 나열과는 거리가 멀며, 교육의 기초들 다지는 몇 개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최선숙, 2000, p. 88) 한국과 비슷한 담임체제로 보이기는 하나 프랑스 교사들은 교환수업, 시간 운영, 수업 공간의 결정 등의 자율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교사 간 공조체제, 모둠 작업 또한 가능하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학교와 문화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 문화 예술 전문가 등이 학교 교육 안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듯 프랑스 미술교육에서는 아동전문가와 미술전문가가 함께 미술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VI. 결론

미술 교육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과목이다.

한국의 미술교육 역시 이러한 미술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의 도입은 입시제도나 수업환경의 열악함, 인식의 부족 등의 여건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은 기능중심의 교육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교육의 인식은 예술은 사회 곳곳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육의 기초방법의 하나로 미술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학교나 교육부만의 담당이 아닌 각 문화예술 기관들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교사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학생과 환경에 맞게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지도한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늘 예술을 접해야 하고, 자신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설명하는 것은 프랑스 미술 교육의 또 하나 방법이다. 미술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은 절대 작품을 평가하지 않는다. 좋고 나쁜 것이 없으며 잘 하고 잘못 한 것이 없다. 아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듣고 수긍하며 존중해준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을 때 상상력과 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상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많은 상상을 할수록 창의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미술관을 이용한 수업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은 아이들의 운동신경과 정서발달이 연결이 되어있다고 본다. 결국 아이들은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몸짓과 사물들을 통해서 세계를 발견해 나간다. 아이들은 놀면서 거장의 작업방식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이 어려운 예술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술가들의 작업방법과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예술을 친근하게 대하게 되며, 그것은 미술관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발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또한 다양한 노력이 잘 실행되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의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의 미술교육과 비교해 보면 우리교육의 낙후성과 그 개선방안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여부이다. 아동의 감성 육성으로 인격체 완성이라는 목적을 지닌 대중적 미술교육뿐만이 아니다. 훌륭한 예술가의 육성을 국가의 존엄과 연결시키는 교육정책의 질에서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10년 이상 미술교육을 받고서도 미술은 모르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재능 있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미술은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영역이 아닌, 독창적인 발상 능력과 효과적인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누구나 쉽게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미술을 즐기는 사회가 되려면 미술을 이해하고, 미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학교 미술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프랑스 미술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자.

첫째,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술 표현의 발달과정에 맞게 적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의 삶 속의 미술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모든 학교의 조형 예술 교육은 예술적인 창작과 관련된 조형 실습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예술 작품과 실습 간의 끊임없는 교류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예술 문화를 배우게 된다.

셋째, 다른 교과목과 연계 학습을 도입하고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학생들에게 문화유산, 박물관, 미술관, 화랑, 예술가의 아틀리에 등을 견학시켜 작품들을 직접 보고 작가들과 구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술교육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술교과는 개인의 주관성과 각자의 감성이 지극히 존중되는 교과로서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 표현이 독특한 각각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이다. 단순 지필평가와 작품제작 평가는 적절한 평가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나 태도, 수업에 참여하는 성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체크하는 동시에 대화와 자기 평가서 제출을 통한 평가, 제작한 작품과 감상한 미술작품에 대한 학생의 생각 등을 평가하는 등의 미술교육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듯 프랑스와 같은 미술교육의 선진국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연구를 진행하여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미술교육의 현실에 맞는 이론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의 질적 향상에 관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미술교과의 당위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스스로가 창조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재능을 키워나가도록 고양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http://www.ncic.re.kr>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5, 서울: 대한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http://www.ncic.re.kr>
- 구자억, 정광희, 전호선, 정영순. (1998). 교육개혁 지역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동영 (1993). 미술수업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집(한국교원대학교), 9(2), 273-301
- 김성숙, 김정희, 김형숙, 김혜숙, 안금희. (2012).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 김영학. (1982). 미술의 교육, 서울: 향서각.
- 김 정. (1993). 세계의 미술교육, 서울: 예경
- 김정효. (2010). 초등학교 미술교육이 기초학습 부진아의 학습발달에 미치는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정희. (2003).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 김진희. (2002). 초등학교 미술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택용. (1979). 아동미술 교육의 현상이론, 서울: 우진관광문화사
- 김향미. (2003) 한국초등미술교과서의 변천과 조망, 서울: 학지사
- 김희영. (1994). 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한국프랑스학회), 12, 309-330
- 박미정. (2011). 한국과 프랑스의 중학교 미술교육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은 (2005).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http://artezine.arte.or.kr>
- 백중열. (2008). 초등미술교육의 현황과 미술영재의 육성방안, 한국미술교육학회지, 22(2), 211-227

- 손영희 (2010). **한국 미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프랑스의 미술교육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규민. (1998. 6. 22). 프랑스 파리 ‘방과 후 활동’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p. 13
- 이규민. (2000). 프랑스의 미술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中心으로, **한국초등교육(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1(2).
- 이은적. (2001). 미술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프랑스 의무교육제도-초등학교와 중학교-속의 미술교육 내용의 구성에 관한 인식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한국미술교육학회)**, 12, 91-112
- 이화식. (2010). 미술교육, 서울: 참교육과미래
-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 (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서울: 예경
- 차지연. (2005).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술교육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덕자. (1999). **유치원과 초등학교 미술교육 교육과정 현황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선숙. (2000). **프랑스의 초등교육과 전담제**, 서울: 우리교육 10월호.
- Arther D. Efland. (1996). **미술교육의 역사**(박정애 역), 서울: 예경.
- Donald Wnnicutt. (1998). **그림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EBS교육방송. (2010). **세계의 교육현장: 창의력을 키우는 프랑스 미술교육**. 전4편. VOD. EBS 교육방송.
- Victor Lowenfeld. (2002).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서울대미술교육연구회 역), 서울: 미진사

A B S T R A C T

Comparative Study of Art Education in Korea and France - Focused on Elementary Art Education-

Song, Sun Young

**Major in Elementary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im, Choon Bae

Art education is an important course that refines human emotions and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bring creativity and imagination which are considered significant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 current issue of Art Education in Korea is that it has not been performing the role of art education properly due to poor entrance system or learning environment and lack of awar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art education with the comparative study on art education of domestic elementary school which is a very important period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of France. The content of the study examined in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compared the flow, status and curriculum of art education in Korea and France.

Through the comparison, we have found the difference of social care and perception between two countrie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France, art education is a basis and driving means of all education, but art education is still being neglected in Korea.

Art education in Korea will need to be changed to meet contemporary education standard and practice it escaping from simply following the previous function-oriented, indoctrinating education. Also, by conducting an objective analysis and research on art educatio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France, a theory of art education in Korea which fits the reality will need to be established, accepting the benefits and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By doing so, its own curriculum in Korea should be formulated. Art education in Korea will need to present a better way to go as a creator, and provide students with a guidance to grow their talent. Helping them to find what they really need will be the true meaning of education.